

News

'코로나19' 착시 효과?... 9월 은행대출 연체율 하락

머니S

9월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은 0.21%로 전월말(0.24%) 대비 0.03%포인트 하락

9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은 1조1000억원으로 전월수준을 보였지만 연체채권 정리 규모가 전월동기와 비교해 1조원 늘어난 1조7000억원을 기록

'시중은행보다 싸다...'고금리 피해 인뱅문 두드린 대출자들

이데일리

카뱅 최저금리 3%대...시중은행과 2%포인트나 차이

비용 줄이며 금리 낮춰...지난달 한도 조회 75% 꺾춤

대출비교 플랫폼, 대환대출 시스템과 시너지 낼까

세계일보

네이버 곧 '신용대출비교' 서비스, 핀다·카카오·토스와 4파전 경쟁

금융위 2023년 온라인 대환대출 예고, 영업점 방문 없이 갈아타기 가능

글로벌 이익 30%·비은행 50%...조용병, 새 전략 '1·3·5 플랜' 시동

서울경제

신한금융, 중기 목표 '글로벌 이익 비중 30%, 비은행 부문 50% 달성'을 제시

리딩뱅크 입지 굳히기 돌입, 대한민국 1위, 초격차의 종합 금융그룹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

또 연기...보험 비교 서비스, 빨라야 내년 하반기 출시될 듯

뉴시스

보험사·설계사·핀테크사 대립 첨예, 자동차보험 포함 여부 놓고 갈등

예금 중개사업 진행 속도와 비교돼

백내장 과잉수술 막았지만...실손보험료 또 10% 이상 오른다

매일경제

주요 보험사들이 내년 실손보험료 적정 인상을 검토에 들어감, 3세대 실손 내년부터 인상 가능

올해 인상률은 작년보다 낮은 12~13%대가 될 것으로 예상

증권사, 유동성 확보 '비상' 위기대응 능력 촉각... 신용도 주시

머니S

일부 증권사를 바라보는 신용평가사들의 의구심이 높아짐

증권사의 유동성 위기 대응 능력과 자산건전성 관리 여부에 따라 증권사 신용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증권업계 "금투세 강행시 시장혼란 가중"...유예 촉구

연합뉴스

오늘 금투협서 간담회...애널리스트 등 참석해 시장 영향 분석

증권사, 금투세 도입으로 고액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할 경우 시장 불안과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할 것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